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7년 7월 23일

제07-32호

한·미, 한·EU FTA 동시 추진의 경제적 효과

송백훈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부연구위원 (bsong@kiep.go.kr, Tel: 3460-1208)

김홍종 세계지역센터 유럽팀장 (hckim@kiep.go.kr, Tel: 3460-1036)

이준규 세계지역센터 미주팀장 (junkyul@kiep.go.kr, Tel: 3460-1128)

서진교 무역투자정책실 실장 (jksuh@kiep.go.kr, Tel: 3460-1156)

주요 내용

- ▣ 미국 및 EU와의 동시 FTA 체결시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7.6% 추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생수준은 277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음(누적효과).

 - 고용(누적효과)은 단기적으로 10만 7,000명, 중장기적으로 약 55만 3,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 ▣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 섬유, 전기·전자 산업은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기계, 화학, 플라스틱류 제품, 의약품 및 화장품 산업은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EU의 산업구조가 일본과 경쟁적이어서 한·미 FTA보다 한·EU FTA를 통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대체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 ▣ 농업부문에서는 돼지고기, 포도주, 치즈, 채소, 주스류 등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과 경합하고 있어 한·EU FTA로 인한 농업부문의 추가적인 생산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한·EU FTA 체결시 양국간 민감품목의 예외 적용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생산 감소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 서비스 양허안 협상은 포지티브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개방수준은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EU는 법률·금융·유통·운송·통신 등의 서비스에 관심을 보이는 반면, 의료·교육·시청각 등의 서비스는 민감 분야로 분류하고 있음.

1. 한·EU 교역관계

- EU는 우리나라의 2번째 큰 교역 상대국으로, 2006년 우리나라는 EU에 485억 달러를 수출하고, EU로부터 301억 달러를 수입하여 184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
- 한국과 EU 간 수출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02년 대비 2006년 무역수지흑자는 194% 증가하였음(63억 달러→184억 달러).

표 1. 한국의 주요 국가별 수출입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수출					수입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EU 25	23,765 (14.6)	27,027 (13.9)	37,890 (14.9)	43,770 (15.4)	48,537 (14.9)	17,497 (11.5)	19,816 (11.1)	24,195 (10.78)	27,303 (10.5)	30,084 (9.7)
미국	32,943 (20.3)	34,369 (17.7)	43,027 (17.0)	41,499 (14.6)	43,320 (13.3)	23,111 (15.2)	24,935 (13.9)	28,919 (12.88)	30,788 (11.8)	33,797 (10.92)
중국	23,753 (14.6)	35,110 (18.1)	49,763 (19.6)	61,915 (21.8)	69,459 (21.3)	17,400 (11.4)	21,909 (12.3)	29,585 (13.18)	38,648 (14.8)	48,557 (15.7)
일본	15,140 (9.3)	17,276 (8.9)	21,701 (8.6)	24,027 (8.5)	26,534 (8.2)	29,855 (19.6)	36,313 (20.3)	46,144 (20.56)	48,403 (18.5)	51,926 (16.8)
대세계	162,466 (100.0)	193,817 (100.0)	253,845 (100.0)	284,418 (100.0)	325,457 (100.0)	152,124 (100.0)	178,826 (100.0)	224,461 (100.0)	261,236 (100.0)	309,379 (100.0)

주: () 안은 세계전체에 대한 비중임.

자료: UN COMTRADE(<http://comtrade.un.org/db/default.aspx>).

2.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가. 거시경제 효과

- 연산가능일반균형(CGE)모형을 이용하여 한·미 FTA와 한·EU FTA의 동시 체결이 가져다 주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함.
- 한·EU FTA의 협상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한·미 FTA에 준하는 협상 결과를 가정함.

- 한·미 FTA 협정문을 분석한 결과, 쌀을 제외한 전 품목에서 개방이 이루어졌으며, 5년 이내 개방되는 품목 수는 전체의 약 96%에 달함.
- 미국 및 EU와의 동시적인 FTA 체결은 우리나라의 실질 GDP를 약 7.6% 추가 증가시키는 효과(누적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FTA 이행에 따른 효과가 향후 약 10년간 경제에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그 증가율은 연평균 0.76%로 볼 수 있음.
- 실질 GDP는 단기적으로는 0.5%, 장기적으로는(자본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감안) 약 7.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누적 효과).
- 후생수준은 30억~277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누적효과).

표 2. 한·미+한·EU FTA의 거시경제 효과: GDP, 후생수준

(단위: %, 억 달러)

구분	정태모형	자본축적모형		
		생산성 증대효과 미고려	생산성 증대효과 고려 ²⁾	
실질 GDP 증가율	한미+한EU FTA	0.48	2.83	7.61
	한미 FTA ¹⁾	0.32	1.28	5.97
후생수준 증가	한미+한EU FTA	30	112	277
	한미 FTA ¹⁾	17	40	209

주 1) 2007년 4월 30일 발표된 자료(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재인용.

2)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시와 동일한 생산성 증대를 가정함.

나. 고용

- 한·미+한·EU FTA체결은 고용을 약 11만 명~55만 명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되었음(누적 효과).
- 단기적으로는(정태모형) 약 11만 명이, 생산성 증대를 고려한 자본축적모형에서는 최대 55만 명이 증가함.

표 3. 한·미+한·EU FTA의 거시경제 효과: 고용(누적효과)¹⁾

(단위: 천 명)

구 분	CGE 정태모형	CGE 자본축적모형	
		생산성 증대효과 미고려	생산성 증대효과 고려
한·미 +한·EU FTA	107.5	226.4	552.9
한·미 FTA ²⁾	57.0	83.2	335.7

주: 1) 고용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거시경제 효과 자료를 근거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산한 잠정수치임.

2) 2007년 4월 30일 발표된 자료(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재인용.

3. 산업별 효과

가. 제조업

- EU의 제조업 평균 관세는 전반적으로 미국보다 크게 높지 않지만, 일부 제조업의 관세는 미국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EU FTA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는 한·미 FTA보다 클 것으로 예상됨. 또한 EU가 미국보다 경쟁력 있는 제조업 부문이 많기 때문에 수입증대 효과도 한·미 FTA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제조업 평균 관세율: 미국(3.7%), EU(4.2%)

- 자동차 평균 관세율: 미국(2.5%), EU(10%)

- 다만 EU의 산업구조가 일본과 경쟁적이어서 한·미 FTA보다 한·EU FTA를 통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대체 효과가 커질 것으로 판단됨.

- 화학섬유 일부, 전기·전자, 일부 기계류는 미국이 일본 수입선을 대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EU는 자동차, 기계, 화학 분야에서 일본 수입선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됨.

1) 자동차산업

- 자동차산업은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한·EU FTA 체결에 따른 수출증대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산업임.

- 특히 EU는 자동차부문에서 10%의 고율관세가 붙기 때문에 대미국보다 대EU의 자동차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미국으로는 주로 대형차, EU로는 주로 중·소형차의 수출증대가 전망됨.
- 한편 우리나라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관세도 높은 편이어서(약 8%) 양국간 FTA로 인한 자동차 수입증가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한·EU FTA에 따라 EU로부터는 고급차를 중심으로 일정 수준 이상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일본산 자동차에서 유럽산 자동차로의 수입대체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2) 섬유산업

- 섬유산업은 수출증대가 기대되는 산업이지만 한·미 FTA에 의한 수출증대 효과보다는 작을 것으로 예상됨.
- 8%의 수입관세가 적용되는 편·직물류, 4% 관세가 적용되는 폴리에스테르 섬유 등에서 수출증대가 기대되며, 수입은 EU로부터 패션의류, 구두, 신발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시장에서 EU 및 미국산 수입제품들은 우리나라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으며, 양국간 수입품 간에도 경쟁이 심하지 않음.
 - 미국으로부터는 고급 화섬분야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수입증대는 부분적으로 일본제품의 수입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됨.
 - 패션의류 부문에서는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높은 경쟁력으로 차별화되어 있고, 특히 가죽, 신발, 가방 등은 이탈리아에 완전 특화되어 있어 수입증대 가능성이 있음.
- 결국 한·미 FTA 체결 이후 한·EU FTA가 체결되면 일부 패션의류와 산업용 섬유 부문에서는 경쟁이 심화되지만,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개별적인 FTA로 인한 수입효과가 거의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3) 전기·전자산업

- 전기전자 제품 중 CTV, 캠코더 등 AV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특히 CTV, 캠코더(EU 수입관세 14%)와 DVD(13.9%) 및 녹음재생기(CD 플레이어 등, 12%) 등의 관세철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의 전기전자 제품 관세율은 5.6%로, 한·미+한·EU FTA 체결시 일부 제품의 수입 증가가 예상됨.
 - 한·미 FTA에 따라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약 1.3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특히 조명, 전자의료기기, 계측장비 등의 수입 증대가 예상되어 국내 영세중소기업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EU의 경우 전기전자분야에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한·미+한·EU FTA 이후 EU로부터의 수입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4) 일반기계산업

- 한·미 FTA로 기계류 분야에서 수지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EU FTA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EU의 일반기계류에 대한 수입관세율이 낮아(1.8%) 한국의 수출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단 8% 관세의 볼베어링 제외).
- 수입 면에서는 일반기계에 대한 한국의 관세율이 5.9%로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한·미+한·EU FTA 체결에 따른 해당 분야 관세 철폐시 상당한 수입 증가가 예상됨.
 - 일반기계류는 한국시장에서 일본, 독일, 미국이 경쟁하는 구도로, 한·미+한·EU FTA 체결 이후 일본으로부터의 기계류 수입이 미국과 EU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산 기계류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져 대일 무역적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정밀기계류는 EU의 경쟁력이 높아 한·미+한·EU FTA 이후 제조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임.

5) 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

- 한·미+한·EU FTA 체결에 따라 화학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소폭 증가하는 반면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됨.
- EU의 화학분야 수입관세는 4.2%로, 한·EU FTA 이후 對EU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에 비해 EU의 경쟁력이 높아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우리나라의 화학분야 관세율은 7.2%로 비교적 높아 한·미+한·EU FTA 체결시 미국 및 EU의 의약품 및 화장품 등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다만 한·미+한·EU FTA 이후 미국, EU, 일본이 경쟁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EU 및 미국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 수입 화장품, 실리콘·폴리아미드수지 등은 국내 수입시장에서 미국, 일본, EU가 경쟁하고 있는 품목임.

나. 농업

- 국내 수입 농축산물 시장에서 EU의 시장점유율은 13%로 안정적이며, EU로부터의 핵심 수입 농축산물은 맥아와 냉동 및 가공채소, 주스류, 포도주, 그리고 돼지고기 등의 축산물과 치즈 등의 낙농품임.
- 이러한 품목 중 맥아와 일부 과일 가공품을 제외한 대부분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과 경합하고 있기 때문에 한·EU FTA로 인한 농업부문의 추가적인 생산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한·EU FTA 체결시 민감품목의 예외 적용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생산 감소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1) 곡물류

- 맥주맥은 한·미+한·EU FTA로 추가적인 생산 감소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품목임.
- 다른 곡물의 경우 EU의 대한국 수출실적이 미미할 뿐 아니라 미국과 겹쳐 한·미+한·EU FTA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2) 채소 및 과일류

- 한·EU FTA로 미국과 경합관계에 있지 않은 일부 냉동채소(토마토 페이스트) 및 가공과일(주스류), 포도주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이로 인한 국내 농업부문의 추가적인 피해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포도주는 칠레와 미국, 호주, EU 등이 경합하는 가운데, 그 동안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던 칠레산의 수입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호주로부터의 수입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 가공용 원료로 사용되던 복숭아 및 포도에 일부 피해가 예상됨.

3) 축산 및 낙농

- 돼지고기와 일부 닭고기, 치즈 등에서 한·EU FTA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한·미 FTA로 미국의 닭고기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EU FTA에 따라 EU와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며, 태국 및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돼지고기는 EU의 경쟁력이 높아 한·미+한·EU FTA로 인해 미국과 EU가 치열한 경쟁을 하는 가운데 EU의 수출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미국보다는 칠레로부터의 돼지고기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치즈는 미국과 EU가 경합하는 가운데 호주와 뉴질랜드로부터의 원료치즈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EU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은 광우병으로 인해 금지되어 있으며, 광우병이 아니더라도 EU의 대한 쇠고기 수출실적은 미미하고, 미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한·EU FTA로 인한 추가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됨.

다. 서비스업

1) 서비스시장 개방수준

- 한·미 FTA는 서비스 개방에서 네거티브(negative) 리스트 방식 및 래킷 메커니즘(ratchet mechanism)을 채택하여 전체적으로 WTO/DDA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함.
- 한·EU FTA 서비스분야는 WTO의 서비스 양허안과 같은 포지티브방식(positive)으로 작성될 예정이지만, EU의 높은 서비스 개방수준이 협정문과 양허안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됨.
- EU의 개방 관심 분야
 - EU는 미국과 달리 일시입국(모드 4) 및 상호인정(recognition)부문이 서비스 자유화의 핵심 요소임을 인정하고, 상호호혜적인 관점에서 협상을 추진하여 서비스 자유화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음.
 - EU는 법률·금융·유통·운송·통신 등의 서비스에 관심을 보이는 반면, 의료·교육·시청각 등의 서비스는 민감 분야로 분류함.
- EU는 세계 서비스 수출입 규모에서 미국보다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EU 회원국의 서비스 총수출은 전세계의 46.5%, 총수입은 43.4%를 차지하고 있음.

표 3. 한국과 EU의 서비스 교역규모(2005년)

(단위: 십억 달러, %)

순위	수출			순위	수입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전세계	2,498.0	100.0		전세계	2,450.0	100.0
1	미국	376.8	15.1	1	미국	314.6	12.8
2	영국	202.1	8.1	2	독일	202.9	8.3
3	독일	154.9	6.2	3	영국	160.1	6.5
4	프랑스	116.0	4.6	4	일본	134.3	5.5
5	일본	110.2	4.4	5	프랑스	106.1	4.3
6	스페인	93.5	3.7	6	이탈리아	90.6	3.7
7	이탈리아	90.0	3.6	7	중국	83.8	3.4
8	네덜란드	78.7	3.1	8	네덜란드	71.8	2.9
9	중국	74.4	3.0	9	아일랜드	69.8	2.8
10	홍콩	62.2	2.5	10	스페인	65.5	2.7
17	한국	45.4	1.8	12	한국	58.5	2.4
	EU 27	1,161.8	46.5		EU 27	1,063.6	43.4

주: EU의 수출입액은 27개국 회원국들의 역내의 교역을 모두 합계한 수치임.

자료: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2007.6).

2) 경제적 효과

■ 한·미 FTA 및 한·EU FTA를 통한 예측 가능성 증대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효과

- 한·미 FTA 협상에서 유보안으로 채택된 서비스 규제 및 개방 수준은 한·EU FTA 이후 안정성과 예측성이 더욱 높아져 외국인의 對한국 투자 리스크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 전체적으로 서비스 규제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서비스산업의 비즈니스환경 개선 효과가 전망됨.

■ 상호자격인정을 통한 인력 진출: EU 중요성 인식

- 미국과의 FTA에서 ‘전문직 서비스의 상호자격인정을 위한 협의체’를 설립하여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사’ 분야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EU는 상호자격인정 분야에 보다 적극적인 협상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해당 분야의 경제적 효과가 미국보다 포괄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전문직 분야의 상호자격인정 추진은 해당 전문직의 분야별 교육 훈련 및 평가제도 개선, 전반적인 전문직 서비스의 시스템 선진화에 기여하는 것 외에, 중장기적으로 서비스 전문인력 이동에 따른 서비스 수출 증가에 기여할 것임.

■ 국내 규제의 합리화

- 국가의 정책 목적상 신규 규제 도입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르는 조치 실시로 자의적인 국내 규제가 어렵게 됨에 따라, 서비스 공급업자의 법적 안정성 및 투명성이 제고되어 교역 및 투자의 촉진 효과가 전망됨.

■ 소비자 잉여 및 제조업 생산성 증대

- 한·미 FTA로 개방이 확대되는 통신·방송 등의 국내 주요 서비스시장은 과점 형태로, EU가 통신 분야의 외국인 지분제한 개방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한·미 및 한·EU FTA를 통해 과점시장의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통신·방송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 제고를 통해 소비자 잉여가 증대할 것임.
- 아울러, 사업·통신·금융 등 대다수 서비스를 중간재로 투입하는 제조업의 생산성 증대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 경제 전반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4. 정책적 시사점

- 한·미 FTA+한·EU FTA의 거시경제 효과는 개별 FTA의 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한·미 FTA+한·EU FTA의 실질 GDP 증대효과는 개별 FTA 효과의 단순 총합보다는 작지만 개별 FTA (한미 FTA 또는 한EU FTA)보다는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실질 GDP를 약 1.6%, 후생을 약 70억 달러 추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한·미 FTA+한·EU FTA는 우리 시장에서 미국과 EU의 경합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일본 등 다른 수입국으로부터의 수입선 대체효과를 발생시킴.

- 특히 자동차와 일반기계류 분야에서는 기술이 발달한 미국, 일본, EU 제품 간 국내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
- 반면 한·미 FTA+한·EU FTA 추진으로 한·미 FTA에 추가될 농업분야의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특히 EU와의 FTA는 민감품목의 경우 상당한 정도의 예외 가능성이 크며, 수입증대가 예상되는 품목도 미국과의 경합으로 인해 한·미 FTA에 이은 추가적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서비스부문은 한·미 FTA와 한·EU FTA를 통해 제도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서비스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더불어 교역 및 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기대됨.